



새로운 유가연동제는
우리로 하여금 과거
교복자율화 만큼이나 많은
기대와 불안을 동시에
안겨주고 있다.

얼마전 까지만 해도 석유는 연탄
과 더불어 주부들로부터
미운정 고운정을 받으며 삶의 애환을 나
는 대표적인 가정용 연료였다. 그런데 언
제부터인지 보다 편리한 도시가스등이 공
급되기 시작하면서 석유의 위세는 슬금슬
금 실생활의 뒷전으로 물러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주부들도 기름값에 대해 점점

둔감해졌다. 그러나 꼼꼼히 생각해보면
우리의 생활주변에서 석유로 만들어지지
않은 제품과 생활용품이 거의 없으니 우
리의 생활과 가계부가 석유로부터 완전히
벗어난다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한 형편이
다. 아닌게 아니라 요즘 우루과이 라운드
다 그린 라운드다 하는 외부의 거센 개방
의 물결을 보면서 언젠가 다시 제3의 오
일쇼크가 일어날 수도 있겠구나 생각하면
유가에 무관심할 수도 없다는 생각이 든
다. 주부들은 소비경제의 주체다. 콩나물
값 파값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주부들 입
장에서 기름값도 이제는 예외가 될 수 없
는 상황이 되었다. 최근 자동차가 급속히
늘어나면서 여성 오너드라이버도 크게 늘
어나는 추세로 보아 여성들의 기름값에
대한 관심은 앞으로 더욱 높아질 것이다.

자동차왕국인 미국에서는 주유소마다
기름값이 다르다고 한다. 주유소마다 경
쟁을 벌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미국의 주
부들은 주유소 앞에 써붙인 가격표를 보
고 조금이라도 싼 곳을 찾아가 기름을 넣
는다고 한다. 이같은 알뜰함을 이제 우리
나라 주부들도 실천할 때가 된 것 같다.

지난달부터 유가연동제가 실시되었다.
이 제도는 아직 미국과 같은 완전자유화
와는 거리가 있지만, 어쨌든 석유유통시
장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 틀림없다. 또
소비자들의 구매패턴도 달라질 것이다.
과연 유가연동제는 우리 생활에 어떤 영
향을 미칠까. 주부의 입장에서 예견해보
는 긍정적인 측면은 이렇다.

첫째로 소비자들의 기름소비형태가 과
거의 무관심형에서 절제형으로 서서히 바
뀌어 갈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 소비자

유가연동제, 그 이후④

유가연동제, 그 첫발 선상에서



白種和
<주부·일산 신도시 거주>

들이 기름값의 차이를 직접 피부로 느끼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사실 요즘 기름값이 오랫동안 안정세를 유지하다보니 소비자들이 과거 두차례 오일쇼크의 충격을 까맣게 잊은 채 과소비에 빠져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자아내는 요즘의 상황이다. 사실 우리나라는 기름 한방울 나지 않는 자원빈국이 아닌가. 유가연동제는 이러한 기름 과소비풍조에 어느 정도 제어구실을 하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둘째로 그동안 정부의 과보호 속에서 성장해온 정유사들이 서로 경쟁을 벌임으로써 경영합리화를 통해 소비자들에게 보다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정유사들은 소비자에게 보다 양질의 기름을 보다 싼값으로 공급하기 위해 기술혁신과 비용절감을 추구해 나갈 것이다. 이제부터는 소비자로부터 외면받는 상품은 살아남을 수 없으며, 석유도 예외가 될 수 없을 것이다. 이제 석유도 소비자들의 선택 앞에 머리를 숙여야 하는 경쟁시대가 된 것이다.

이렇듯 유가연동제는 과거 통제가격제도가 갖지 못했던 여러가지 장점을 갖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점도 지적되고 있다.

우선 우려되는 것은 정유사들이 유가조정 시기와 폭을 사전에 알게 됨으로써 가격인상 예정시에는 출고제한, 매점매석으로 인한 유통혼란 가능성이 있으며, 또 인하 예정시에는 생산감축·중단, 구매기피, 구매지연등의 문제가 우려된다.

그리고 이러한 사태가 발생했을 때 과연 정부가 시장감시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하는 점도 우려사항이다. 이것이

공나들값
파값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주부들
입장에서
기름값도
이제는 예외가 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한낱 기우가 아니라는 것은 지난 겨울 주부들을 얼어 붙게 했던 파값파동이 웅변으로 말해주고 있다. 턱없이 치솟는 파값을 잡지 못한 채 그저 지켜보기만 하던 정부의 무관심·무능력을 본 주부들로서는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이 크다.

아울러 우려되는 또 한가지는 국제유가가 급격히 폭등하거나 하락할 때 정부가 국내유가를 실질적으로 소비자들이 큰 충격이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까 하는 점이다. 이것은 전적으로 기업의 양심과 윤리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렇듯 새로운 유가연동제는 우리로 하여금 과거 교복자율화 만큼이나 많은 기대와 불안을 동시에 안겨 주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개방화로 가는 과정에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이라고 한다면 이 제도에 대한 지나친 부정적시각은 온당치 않을 것 같다. 우리가 원하는 원하지 않는 시대환경은 바뀌고 있다. 우루과이라운드 타결 이후 더욱 거세지는 개방압력속에서 언제까지나 보호장벽속에 국내 석유시장을 남겨 둘 수는 없을 것이다. 이를테면 부모가 지식들을 과보호한 나머지 아이들이 밖에 나가 놀다가 다칠까봐 외출을 금지했을 때 생기는 부작용은 과감하게 나가 놀게 했을 때의 부작용을 훨씬 능가하는 것처럼 유가도 정부통제하에 남겨 둘 경우 그 부작용이 더 크지 않을까.

아무쪼록 주부의 입장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는 유가연동제가 제대로 뿌리를 내려 국가·국민 모두에게 이익이 되고 나아가 전면적인 유가자유화를 앞당길 수 있기를 바란다. ♣